

01 교회소식

마지막 때를 깨우는 역사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통해 대망의 2017년에 베푸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려본다.

02 생명의 말씀

복 있는 사람(1)

참된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좇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높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03 기획특집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영육 간에 큰 응답의 통로이자 변화의 능력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 진정한 감사를 통해 누구나 그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04 간증

“주님 은혜로 변화되니 축복이 넘쳐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은 주재근 집사와 성결의 복음으로 가정과 교회에 축복이 넘치는 말레이시아 류진타오 전도사 간증.

# 만민뉴스

제770호 2017년 1월 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재창조의 권능으로 세계를 진동케 하는

# 2017

2016-2017 송구영신예배를 앞두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16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후 본당에서 사무연회를 인도하였다. 매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새롭게 제시 되는 가운데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외의 1만 1천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전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4대 비전을 발표하였다.

### 비전 1\_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권능'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시편 62:11)

재창조의 권능을 100% 완성하면 오늘날처럼 지구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이상기후,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을 기온 조절 능력으로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사람 몸의 죽은 신경이나 퇴화된 조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며, 죄로 변질되고 악으로 물든 사람의 마음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재창조의 권능은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구원해 내는 비밀 병기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새해를 맞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기대한다.

### 비전 2\_ 만민을 구원으로 이끌 '교계와 해외선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디모데전서 2:4)

오늘날 세상이 죄악으로 급속히 물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계도 혼탁해져 많은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엄청난 기세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 사람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영적인 말씀, 권능의 사역을 함께 이뤄 갈 영적 장수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을 갖춘 제단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

세계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적으로도 때가 되었으니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교계를 정화시키고 전 세계에 휘몰아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

### 비전 3\_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루는 '아름다운 성전'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편 37:6)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빛을 발하며, 마음 중심에서 아름다운 향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 따라서 가나안성전과 대성전 건축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신뢰함으로 이루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야 이룰 수 있다. 특히 대성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상징물로서, 장차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 비전 4\_ 목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목자의 열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편 126:5-6)

교회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게 하시고, 2010년부터 목자의 희생으로 영의 흐름, 온 영의 흐름을 만드시며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주력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목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목자의 열매'를 얻고자 수년간 '신뢰'를 강조해 오셨다. 목자의 눈물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라야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을 온전히 힘입어 영과 온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새해에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목자와 함께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주역이 될 뿐만 아니라 목자의 열매, 곧 하나님의 고대하시는 참 자녀로 나와 아름다운 천국에서 세세토록 칭찬과 영광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복 있는 사람(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시편 1:1~6)

기 유익을 위한 갖가지 계교를 세우고 상대를 짓밟아서라도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악인의 꾀를 좇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개가 자신을 경배하지 않으므로 심히 마음이 상해 모르드개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하고자 꾀를 짜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아심으로 자기 꾀에 빠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이 드러나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됨으로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 했던 나무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인의 계교는 반드시 재앙을 불러옵니다. 신문만 보아도 부귀영화를 위해 모략을 세우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가 결국 악한 꾀가 드러나 멸시천대 가운데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직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좇아야 복된 길로 인도받으며 형통함을 입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부유해지는 길이고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을 지혜라 여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온전한 심의 일조와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할 때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해도 상대를 속이거나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슬픔, 고통을 체험하였지요. 이처럼 죄인의 길은 심판과 사망이므로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지 않으며, 아무리 욕심이 많고 도적질할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훔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죄악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라 하십니다. 미움, 시기, 질투, 도적질, 간음, 판단, 정죄와 같은 것이 마음에서 발동되면 육신의 일을 행한 것이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죄인인 것입니다.

더욱이 행함으로 범죄하는 육체의 일은 더 하나님 앞에 중한 죄가 되며(갈 5:19~21) 아무리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고 육체의 일을 행하면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범죄하지 말라고 하면 혹자는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할 때가 고통스럽고, 사랑하며 섬길 때는 평안하지요.

사울 왕의 경우 다윗을 시기해 죽이려 쫓아다닐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곤고했겠습니까. 왕위와 영화를 유지하고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니 악신이 들리는 등 고통과 재앙이 왔으며 결국 전투에 패해 비참한 죽음을 맞았지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감동적인 찬양을 올리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뢰하였습니다(시 23편).

이처럼 다윗은 범죄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행했으므로 항상 평강과 기쁨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므로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도 막아 주시지요.

### 3.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스스로를 높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아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자기를 내세우며 대접받으려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멸시하면 고통받으며 어떻게든 섬김받으려 하지요. 이처럼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반드시 뜻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높임을 받습니다(눅 14:11).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낮은 자가 되면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고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복있는 사람이 되려면 결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악인의 꾀를 좇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높아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스스로 낮아지며 섬기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망의 2017년 새해 벽두가 밝았습니다. 흔히 건강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등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참된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영원히 누릴 수 없으며,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을 가졌어도 생명을 잃으면 다 헛되며, 주를 믿지 않는 삶은 결국 지옥으로 가니 결코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며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만사 형통한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 1.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사람

악인의 꾀는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는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 즉 비진리의 악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일들을 도모하지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함으로 자

### 2.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성경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했습니다(롬 6:23). 첫 사람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사망으로 가게 된 이유도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 불순종하는 죄인의 길에 섰기에 이 땅에서 눈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요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감사’는 축복의 비결!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육 간에 축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원하십니다. ‘감사’를 통해 더 큰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2017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 '감사'는 응답을 끌어내리는 통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감사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바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참혹한 불과 유황의 지옥이 아닌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하신 말씀을 믿으면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변함없이 믿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니 염려할 것도 없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믿음이다.



믿음에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다. 육적인 믿음이란 눈으로 보아서 확인이 되는 것, 자신의 지식과 생각에 일치하는 것만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 중심에서 믿어야 하며, 그럴 때 순종하는 행함이 따른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약 2:26)으로는 응답이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구원조차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영적인 믿음이란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믿으며, 한번 믿은 것은 현실과 조건에 상관없이 변개하지 않

고 믿는 믿음이다(히 11:1~2). 또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거를 보이니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도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듣고 배워서 지식으로 담아 놓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영적인 믿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설령 환경이 나쁘고 조건이 안 좋아도 감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바꿔 주시니 믿음 안에서는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것이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통로라 할 수 있다.

## » '감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움으로 마음의 비진리는 벗어버리고 선과 사랑인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것이요, 주님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요일 1:5~7).

처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의미를 알아갈 때 성경에 담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하며 감사가 넘치고 그 말씀들이 꿀맛같이 달게 느껴진다(시 119:103).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는 과정에서는 풀무에서 정금이 나오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단련 과정을 겪듯이, 사람의 마음도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죄와 악을 발견하고 깨달아 빼내야 한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고 마음의 악을 버리면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발견하면 힘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악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다. 만일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죄악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착각한 것이다. 세상 것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재미도 없고 의욕도 안나고 기운도 없는 것이다. 즉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잠재운 것뿐이니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실 리 없고 은혜가 임할 리 없으며 충만할 리도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다. 진리로 변화되고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도 도와주셔서 비진리를 벗어버릴 수 있다. 혹여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해 주저앉았다면 이는 큰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것임을 깨달아 오직 감사로 이겨내기 바란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신속히 믿음의 반석을 넘어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2017 JANUARY**  
2017. 1.1~ 1.7

**주요프로그램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사랑의 2016년
-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2
- 사랑장 16-20
- 믿음의 분량 13-17
- 공간과 차원 2-7
- 3차 영혼육 1-6
- 창세기 강해 53-59
- 축복 5
- 위로부터 난 지혜 1-4

**GCN TV설교**

- 내가 시행하리니 1-4 (이수진 목사)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1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21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6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1 (정구영 목사)
- 영의 공간 6 (천우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혜복기) 24
- 관능 스페셜 17
- 창조와 과학 16
- 알콩달콩 어여쁜 울릉 60
- 내 마음의 찬양 40
- 모두 드려요 41
- 마지막 때 5
- English 5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4
- 필리핀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은 길 19

**GCN HD 채널**  
**ktalleg tv 882번**

#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재근 집사 (57세, 3대대 31교구)



저는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만나 1997년 1월에 등록한 뒤에도 직업상 주일근무와 출장이 잦아 온전한 주일성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늘 있던 차에 2011년 10월, 저를 위해 기도하던 아내 김선덕 집사의 권유로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저는 찬양 중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성령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주일 근무가 끝난 후에는 저녁 9시 빛과소금교회 주일예배(주일에도 근무하는 유통업·요식업 성도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동종 건설 현장으로 인도받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

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십일조를 드린 뒤에는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요. 더욱이 학생 때 다친 허리와 스트레스로 인해 뒷목이 빠근한 증세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적은 노력에도 많은 축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와 틀이 강해 불합리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업계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생각하고 정한 대로 아내와 세 딸들이 무조건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다행히 2013년 초부터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깨닫고 저는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 하며 합리화시킬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곧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저는 신축 현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하여 당회장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받고 일과를 시작하며 만민의 양 떼로서 본이 되고자 노력했고, 각종 예배 참석은 물론 매일같이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예전과 달리 직원들의 의견을 자상히 물으며 최대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직

원들도 점차 저의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들을 배려하고자 노력하니 자녀들도 체계스스럼없이 얘기하고 가족이 소소하게 웃을 일이 많아 졌지요. 이처럼 노력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기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다른 곳에는 비가 와도 제가 맡은 현장은 고센 땅처럼 비가 오지 않게 보호해 주시거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량, 혹은 근무가 마쳐진 후에 내려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현장이 2016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전반기 안전점검에서 서울시 1등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지난해 11월 22일 건설기능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할렐루야!



# “세 아들이 게임과 폭력에서 벗어나고 교회에도 생명력이 넘칩니다”

류진타오 전도사 (41세, 말레이시아)

10여 년 전, 타교단에서 주의 종으로 사역하던 저는 남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4남매를 키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영혼들을 생각하니 사역도 놓을 수 없어 버거운 삶은 계속되었고, 세 아들마저 게임 중독과 폭력으로 빛나가자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던 중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전해 듣고, 이후 한국 무주에서 열린 ‘2014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재록 목사님의 사역을 목도하며 흑암 속에서 광명의 빛을 찾은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신앙서적과 GCN방송의 설교를 통해 저처럼 얽히고설킨 문제라도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지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대신해 회개기도로 준비한 후

‘2015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을 위해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재록 목사님께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신 뒤로 남편의 정신질환이 많이 호전되어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됐고, 아이들도 180



도로 바뀌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째 허샤오웬(17세) 형제는 인터넷 게임을 끊고 이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으며, 수시로 금식하며 성결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철야 기도회 참석은 물론, 하교 후에는 저를 도와 학생들에게 성결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재록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이루는 일꾼이 되고 싶다는 비전도 갖게 되었지요.

폭력적이던 둘째 허샤오상(16세) 형제도 변화되어 더 이상 싸우지 않으며, 스마트폰 게임을 끊고 성도들에게 만민찬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는 착한 아들이 된 뒤 학업 성적도 올랐지요. 셋째 허샤오은(11세) 형제 역시 게임을 끊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되었고, 막내딸 허메이은(9세) 자매도 기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성결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니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로 중만해져 신앙생활에 행복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기도로 저희 가정을 살려 주시고, 교회 사역에도 큰 축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주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